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	기간	2018.1.15.~2019.2.5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알고마 대학은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1시간 10분정도 걸리는 수세인트마리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깥은 매우 춥지만 학교 안에 들어오면 전혀 춥지 않습니다. 히터가 잘 나와서 학교 안에서는 롱패딩을 잘 안 입고 다녔습니다. 알고마 대학 자체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서 한국인 15명이 단체로 돌아다녀도 눈치가 보이지 않았습니
수업	다.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Grammar, Volunteer 준비, Lunar New Year발표준비, Listening through Media, Reading/Cultural Studies, 메모리북 만들기 등이 있었습니다. 수업은 첫날 테스트를 봐서 Advanced 와 Intermediate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다 같이 듣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우 열정적이었고,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말씀해주셔서 수업을 따라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제는 거의 없었고, 중간 중간에 퀴즈를 보는데, 수업만 잘 들으면 풀 수 있는 부담 없는 퀴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final test를 보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형식을 다 알려주셔서 어렵지 않았습니
Activity	다.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skating, retirement home 봉사활동, k-lunch, school봉사활동, Alpaca farm, Dog sledding, ski, 하키게임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skating, ski, dog sledding 같은 경우는 밖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고가야 합니다. 특히 ski는 스키바지와 스키장갑 등이 필요한데, 없거나 들고 가기 힘들다면 가기 전에 홈스테이분들께 이메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키장비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번의 봉사활동과 k-lunch를 했습니다. 15명이 4팀으로 나뉘어 4개의 부스를 만들고, 각 부스마다 한국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저희끼리 직접 정하고, 필요한 물품을 만들고 준비합니다. 이때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한데, 한국 돈이나 젓가락, 작은 한국 지도 등을 추천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춥습니다. 평균 영하 2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따뜻한 패딩, 부츠, 장갑, 목도리 필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가 엄청 추웠던 때였고, 평소에는 영하 10도 안팎이라고 합니다.) 두꺼운 양말이랑 핫팩도 챙겨가세요. 하지만 많이 껴입고 밖에 오래 안 있으면 생각보다 버틸 만 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버스가 일찍 끊기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버스시간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 외엔 매우 안전합니다. 버스기사들도 매우 친절하고, 길을 잃으면 학교선생님께 연락드리면 친절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다들 친절해서 3주 동안 생활하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v)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부가 사는 집에 배정되었습니다. 제 방은 1층에 있었고, 혼자 썼습니다. 방은 매우 따뜻했고, 아늑했습니다. 그런데 온돌이 아니고 히터를 쓰기 때문에 조금 건조할 수 있으니, 미니가습기 있으면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v)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주로 홈스테이에서 저녁을 먹었고, 점심은 저녁에 남은 음식을 싸갔습니다. 그리고 간식들을 많이 챙겨주셔서 간식을 따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나눠먹었습니다. 가끔씩 다운타운에 가서 외식을 하기도 했지만, 3주 동안 3번 정도만 밖에서 사먹고, 주로 다른 친구네 집에서 먹거나 홈스테이 집에서 먹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대부분 학생들이 버스로 통학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마다 홈스테이 대디가 데려다 주셔서 하교와 시내에 갈 때만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시내에서는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10분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버스패스를 주는데 꼭 잘 간직하세요. 저는 셋째 날에 버스패스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새로 사려면 매우 비쌉니다. ㅏㅏ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74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300,000	기념품, 외식비, 토론토여행비용, 옷 등등
카드	300,000	영양제, 초콜릿, 과자
합계	2,34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겨울에 수세인트마리는 항상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부츠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히트텍이나 레깅스 등 안에 끼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많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이폰유저는 보조배터리 꼭 가져가세요. 밖에서는 보조배터리를 항상 끼고 있어야 안꺼집니다..

저는 3주 동안 폰을 정지시킨 다음에, 한국에서 미리 산 캐나다 유심을 꺼서 사용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할 일이 거의 없고, 거의 보이스톡이나 라인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포켓 와이파이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 한국 전통적인 선물을 가져가는데, 꼭 전통적인 것을 준비하진 않아도 됩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실 수 있어요^_^)

한국음식은 김치, 햇반, 컵라면, 도시락 김 몇 개면 충분합니다. 특히 컵라면은 챙겨 가시면 후회안합니다. 나중에 선물로 드릴 수도 있고 좋아요~

카드가 편하긴 하지만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 자주 있기 때문에 최소 200달러는 환전을 해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돈이 동전이 많기 때문에 카드지갑보다는 동전지갑을 더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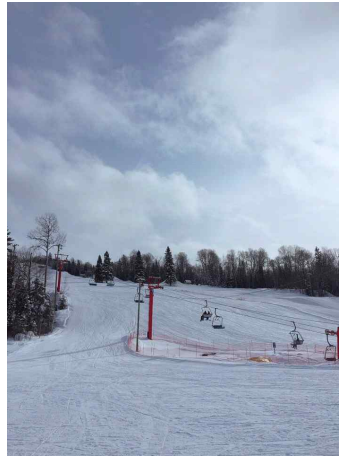
처음에는 3주가 길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알고마 대학의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부모님들은 정말 3주 동안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체험하고 돌아가길 원하셨고, 항상 제 편의를 봐주셨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점심을 만들어 먹거나 쿠키를 만들기도 했고,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좋은 추억들을 남기고 와서 행복했습니다. 단지 영어공부를 위해 갔지만 값진 것을 얻고 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홈스테이가족들과 헤어질 때 울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홈스테이 분들과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나중에 꼭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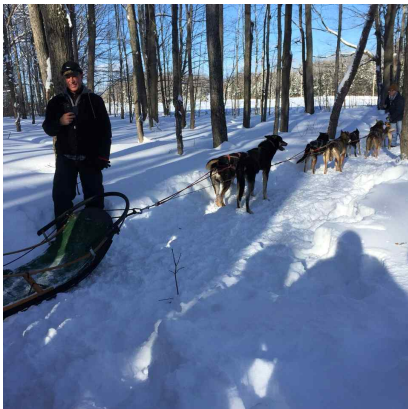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ska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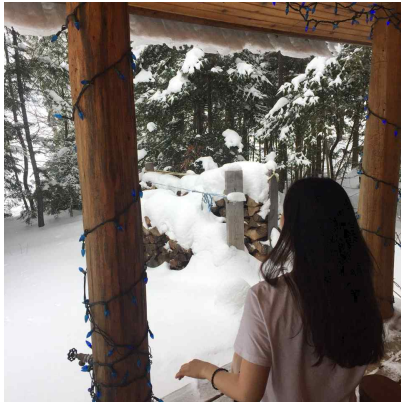
skiing



dog sledding



lake superior



hostfamily's camp(SAUNA)



하키게임